

## 제5차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여학생회장	체육부장	국어국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한정빈	문태석	-	-	백주오	정유승
0	0	공석	공석	X	0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김승호	김자은	정지수	윤상준	김한비	조민하
0	0	0	0	X	X

총원	10	결원	3	현원	7	서기	이지현
----	----	----	---	----	---	----	-----

참관인: 역사식당 서성기, 사무국원 김준형

### 1. 활동 보고

<인문대학 학생회>

03/03

- 인문대학 집행부 정기 회의

03/04

- 봉사 제2차 팀장 회의

03/04 ~ 03/06

- 인문대학 학생회 리크루팅 면접

03/07

- 단대텅 운영팀 회의

03/08

-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 참석

03/11

- 단대텅 팀장 회의

03/12

- 입학대회 장소 김남주홀 대관

<국어국문학과>

- 보고 없음

<독일언어문학과>

02/26

- MT 구매 물품 회의

02/27

- 개강총회 뒤풀이 메뉴 주문

- MT 인원조사

- 과잠 주문

03/02

- 사물함 사용 오픈채팅방 공지

03/03

- 개강파티 장소 예약

- 26학번 과대표 선발

03/04

- 집행부 회의

03/05

- 독문과 개강총회 및 뒤풀이 진행

03/06

- MT 주류 구매

03/07

- MT 장기자랑 무대 인원 모집

03/09

- 집행부 회의

03/10

- MT 점심 김밥 주문

#### <불어불문학과>

02/25

- 과잠 업체 연락

02/26

- 불문과 MT 날짜변경 (03/31 ~ 04/01) 및 장성수련원 예약

03/02

-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공지

03/03

- 멘토·멘티 프로그램 공지

03/04

- 과잠 희망 인원 공지

03/06

- MT 공지

-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진행

03/09

- 불문과 소모임 배정

#### <사학과>

03/02

- 2·3·4학년 학년 대표 후보자 모집 공고

- 사학과 학생회 회의

03/04

- 1학년 학년 대표 후보자 모집 공고

03/05

- 2·3·4학년 학년 대표 후보자 명단 공고 및 홍보 진행

03/06

- 2·3·4학년 학년 대표 선거

- 사학과 학생회 회의

03/07 ~ 03/08

- 사학과 신입생 세미나 (MT)

- 1학년 학년 대표 후보자 명단 공고 및 홍보 진행 후 선거

03/09

- 사학과 학년 대표 당선자 발표

- 인문대 사물함 신청 공지

03/10

- 사학과 확대운영위원회

- 사학과 학생회 회의

03/11

- 과잡 수요조사 진행

03/12

- 사학과 정기 춘계답사 신청

- 사학과 학생회 회의

<영어영문학과>

02/26

- 2차 신입생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02/27

- 학생회비 납부 안내문 발송

03/01

- 사물함 대여사업 카드뉴스 업로드 및 공지

03/03

-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03/04 ~ 03/05

- 사물함 대여사업 진행

03/08

- 봄나들이 MT 일정 및 결강사유서 안내

03/10 ~ 03/11

- 봄나들이 MT

03/11

- 1학년 과대 선발 카드뉴스 인스타 업로드 및 공지

<일어일문학과>

02/26

- 과감 신청자 명단 게시 및 수정 사항 종합

02/27

- 과감 수정 마감 후 업체 연락

03/04

-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03/05

- 총동연 알림아리 야시장 부스 참여

03/09

- 일문과 계절행사 - 사쿠(咲く) 행사 안내 게시

03/10

- 일문과 계절행사 사쿠 선착순 모집 폼 게시
- 일문과 M준위 1차 회의

<중어중문학과>

02/26

- 개강 파티 1차 장소 더맥소 예약

02/27

- 신입생 추합 인원 카톡방 초대

02/28

- 개강 파티 2차 장소 희희 예약

03/01

- 학과 MT 공지

03/03

- 김남주홀 예약 (개강총회, 4월 공청회)

03/04

- 학생회 회의
- 개강총회 공지

03/05

- 중문과 선배님 명예졸업장 수여 2주년 행사 참여

03/11

- 과실 표찰 수리
- 과감 업체 연락

<철학과>

- 보고 없음

<활동 보고 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

Q1. 인문대 회장: 사쿠(咲く)는 어떤 행사인가?

A1. 일문과 회장: 기존에는 벚꽃 필 즈음 선배들과 봉플 및 사진 촬영 후 밴드 게시하면 추

첨해서 상품을 주는 하나미 행사가 있었다. 하지만 단조로운 행사 방식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해보여 이번에 새로 만든 행사다.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1~5번 선배와 1~5번 신입생이 한 팀이 된 후 영수증 사용 내역을 보여주면 학생회에서 2만원 환급해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 Q2. 인문대 회장: 행사 진행은 언제인가?  
A2. 일문과 회장: 신청 폼은 오늘 올라갔고 신청서 수합 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 Q3. 인문대 회장: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는가?  
A3. 일문과 회장: 한 팀에 2명씩 총 다섯팀 생각 중이고 예산은 최대 1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 Q4. 인문대 회장: 이 행사가 계절행사면 2학기도 비슷한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  
A4. 일문과 회장: 사계절 다 할 예정이다. 여름에는 소모임 연계해서 스터디 행사로 같 것 같고 가을·겨울도 각각 다른 행사가 있을 것 같다.
- Q5. 일문과 회장: 영문과 사물함 신청 폼은 몇 명 받은 건가?  
A5. 영문과 회장: 폼이 아닌 방문 신청으로 받고 있다.
- Q6. 일문과 회장: 사물함 몇 개 사용 중인가?  
A6. 영문과 회장: 중앙사물함은 마니또 사업으로 40개 정도 비워뒀고 과실 내 사물함은 3분의 2 정도 사용하고 있다.
- Q7. 일문과 회장: 과실 내 사물함은 몇 개인가?  
A7. 영문과 회장: 약 30개 정도 있다.
- + 인문대 회장: 현재 중앙사물함 마스터키가 분실 상태라 찾을 때까지는 최대한 작년에 사용했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 비밀번호를 받아서 개방 후 사용하셔야 할 것 같다. 시설과에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행정실에 여쭙보니 시설과에서 안 해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정 안 되면 업체에 연락 후 열어 보는 쪽으로 고려해보겠다.
- Q8. 인문대 회장: MT 갔다 온 학과 중 다른 문제나 특이사항은 없었나?  
A8. 사학과 회장: 재활용 쓰레기는 장성수련원에 바로 버릴 수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장성군 쓰레기봉투를 미리 사서 수련원에 버리거나 학교로 가지고 오는 수 밖에 없다.
- Q9. 인문대 회장: 쓰레기봉투를 사면 장성에서 버리고 오면 되는 건가?  
A9. 사학과 회장: 그렇다. 사학과는 75L 쓰레기봉투를 미리 사서 갔다.
- Q10. 독문과 회장: 어디서 구매하셨나?  
A10. 사학과 회장: 사학과 동기의 도움 받아 구매했다.
- A10. 영문과 회장: 장성수련원 아래 마트가 있어 거기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다.

## 1-2. 개별 보고

- 보고 내용 없음

## 2. 심의 및 의결 안건

- 안건 내용 없음

## 3. 논의 안건

### 1. 체전 예선 날짜

#### 가. 인문대학 체전

1) 9/21(월) ~ 9/22(화) 확정

#### 나. 타단과대 체전 및 운동장 사용 날짜

1) 농대 9/9(수) ~ 9/10(목) (변동 가능성 有)

2) 지거국제전 9/11(금)

3) 사범대 9/16(수)

4) 자연대 9/17(목)

5) 경영대·수의대·본부직할 연합 9/18(금)

6) 의대 9/19(토) ~ 9/20(일)

#### 다. 예선

1) 기존: 9/1부터 3주간 예선 후 9/21 ~ 9/22에 체전 진행하기로 정함

2) 변경: 타단과대 체전 일정이 많아 9월에 예선 진행을 못할 가능성 매우 높음

#### 라. 논의

1) 불문과 비대위원장: 조별 예선 없이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건 어떤가?

2) 인문대 회장: 다른 학과도 예선 없이 이틀 안에 다 끝내는 거에 동의하는 건가?

3) 사학과 회장: 예선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경기 수를 줄여서 진행하면 되지 않나?

4) 인문대 회장: 예선 경기 수를 줄이는 건 힘들 것 같다.

5) 사학과 회장: 모든 종목 말고 축구 같은 큰 종목만 예선하는 건 어떤지?

6) 인문대 회장: 축구만 말하고 있긴 하다. 타종목은 공간적 제한이 적지만 축구는 축구장 전체가 필요하다. 또 축구를 풋살로 바꾸기엔 필요 인원이 다르고 종목도 달라서 애매하다.

7) 인문대 회장: 축구 리그전 예선으로 경기를 진행하면 방학 때 시작을 해야 하는데 회장님들 의견처럼 예선 없이 토너먼트로 빨리 끝내도 되고 아니면 토너먼트식 예선으로 진행해도 된다.

8) 인문대 회장: 지금처럼 조별로 진행하면 한 팀당 세 경기씩 뛰고 올라온 후 본선에 서 두 경기를 더 진행하는 거고 토너먼트로 하게 되면 한 경기만 하고 떨어지는 팀은 떨어지고 남은 네 팀이서 본선 이틀만 하면 돼 예선 일자에 대한 부담은 확 줄어들긴 한다.

9) 불문과 비대위원장: 이 부분은 체육부장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10) 인문대 회장: 체전 날짜가 많이 남아서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먼저 애기한 이유는 예선 날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 11) 독문과 회장: 9월 첫째 주에는 타단과대 체육대회 일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때 예선 진행한다면 할 수 있는 건가?
- 12) 인문대 회장: 할 수는 있다.
- 13) 일문과 회장: 총축제는 언제인가?
- 14) 인문대 회장: 아직 날짜가 많이 남기도 하고 연예인 일정과 다른 학교 축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에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총학 축에선 9/30 ~ 10/1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15) 인문대 회장: 중운위에서 학생들과 논의 없이 공사 일정은 잡은 것과 5월 체전 일정을 보장해달라는 식의 성명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장님과 학생처 얘기를 통해 나중에 공사 일정 등 행사 진행에 무리가 있을 때 캠퍼스시설 환경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 성명문까지는 안 올리고 대응 경과 보고문 정도만 올라갈 예정이다.
- 16) 사학과 회장: 어쨌든 학생들이 피해를 본 건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건가?
- 17) 인문대 회장: 광주 시민보다 학생들을 우선으로 일정을 잡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거국 규정에 따르면 주말이나 18시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 18) 독문과 회장: 시간상 여유가 없으면 체전을 토너먼트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과가 좋은 성적이 목표인 만큼 승부욕이 강할 거라고 예상한다. 토너먼트로 진행하면 한 경기만 하고 바로 떨어지는 학과가 생기는데 이런 면을 생각하면 신입생들은 경기를 많이 못 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선을 한 후 본선이 확정되면 남은 경기에 신입생들을 넣어 경험을 쌓게 하는 등 장점이 있는데 토너먼트는 바로 탈락하면 경기를 땔 수 없는 단점도 있는 것 같다.
- 19) 사학과 회장: 남자 경기, 여자 경기 각각 하나씩 예선을 하는 건가?
- 20) 인문대 회장: 남자 예선은 소프트볼과 축구, 여자 예선은 발야구를 진행한다. 발야구와 소프트볼은 운동장 하나를 반반 나눠서 사용하면 가능하지만 축구는 운동장 전체가 필요하기에 학과 체육부장 및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 후 다음 인운위 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 2. 동아리 회칙 개정 질문 사항 답변 정리

### 가. 평가기준 남겨두는 이유

#### 1) 역사식당 의견

- 가) 회칙 제58조 1-2를 예로 들면 동아리 총원 13명 중 사학과는 8인으로 1/3 비율을 넘지 않음
- 나) 최소 기준치를 충족했으나 1,2점 같은 낮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음
- 다) 한 영역에서 의혹 제기가 들어오면 다른 문항 평가에도 영향을 미침
- 라) 인학대회 제명 후 소명 절차는 최소 1달의 기한이 소요되기에 한 학기 동아리 활동에 큰 지장이 생김

#### 2) 결론

가) 회칙 제58조 1-2의 가 질문에 대해서 현재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최소 기준치를 보통이다(3점)으로 규정하고 3점 이하 점수는 부여하지 않도록 조정 원함  
나) ex) 가. 동아리 부원의 소속 학과는 다양한가? (단체구성원이 단일학과 2/3 이상이면 “보통이다”로 한다.)

나. 불시점검 여부

1) 역사식당 의견

가) 불시점검 응하겠지만 회칙에 없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어떤 부분을 단속하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경고나 처벌을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다) 불시점검을 회칙으로 만들어 단속 내용 및 문제 발생 시 경고나 동아리 측 해명 등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규정으로 명시를 해주기 바람

2) 결론

가) 현재 회칙의 경고제도를 바탕으로 불시점검 시행 방식, 평가 항목, 처벌 방식을 회칙으로 명문화하기를 건의함

다. 신규등록·재등록·제명 이후 재등록 점수 상이하게 두는 이유

1) 역사식당 의견

가) 기존 회칙에는 재등록 개념이 없고 항상 신규등록 기준을 받고 있음  
나) 30점 중 24점 이상을 받아야 신규등록이 가능해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을 받아야 함. 하지만 1~2점을 받으면 리스크가 큼  
다) 신규등록 점수가 높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매번 신규등록을 뺏기보다는 중앙동아리처럼 신규등록 절차는 엄격하게 두되 재등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용인해주기 바람

2) 결론

가) 재등록 규정을 새로 만들고 심사 기준을 24점에서 20점으로 완화 바람

라. 동아리 측 재인준 절차 문제점

1) 인준 과정의 복잡성  
2) 평가 기준의 주관성

마. 논의 및 질의응답

1) 사학과 회장: 동아리 지도교수는 누구신가?  
2) 역사식당 회장: 현재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이시다. 하지만 역사식당을 구축하신 분들이 대학원에 많이 계셔서 김창수 교수님께 지도교수를 요청드릴까 고민 중이다.  
3) 사학과 회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동아리 회원의 다양성 부분인데 그렇다면 다른 학과 교수님께 요청하는 게 좋지 않나?  
4) 역사식당 회장: 그당시 역사식당 임원진분들께서 사학과 교수님과 연이 있어서 사학과 교수님으로 지도교수를 요청하신 것 같다. 항상 타과의 영향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역량이 닿는다면 최대한 해보겠다.  
5) 사학과 회장: 역사식당 동아리 자체가 사학과 학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학과에서 시작을 했고 역사를 다루는 학과가 사학과밖에 없으니 여

러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있을 것 같다. ‘동아리 부원의 소속 학과는 다양한가?’ 부분을 점수로 줄 게 아니라 무조건 충족을 시켜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 6) 역사식당 회장: 동아리가 22년도에 만들어지고 저는 24년도 1학기에 들어와서 정확하진 않지만 회칙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학과 다양성이 두 학과만 있으면 된다는 걸로 기억한다. 현기준은 개정 자체가 24년도 2학기에 된 걸로 알고 있다. 동아리 구성의 다양성 평가 항목 자체는 동아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바꾸는 건 엄청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7) 사학과 회장: 회칙을 개정하려면 입학대회 때 말해야 하나?
- 8) 인문대 회장: 입학대회 때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변경 구절을 넣고 카톡방에서 익명으로 찬반투표를 한다. 의결되면 회칙 변경이 되고 반대가 더 많으면 변경하지 못하는 과정이다.
- 9) 일문과 회장: 재등록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고스러움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점수를 어떻게 주냐에 대한 객관성을 마련하고자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한가?’ 를 보면 ‘보통이다’ 가 투명하고 공정한 거다. 이미 최고로 투명하고 공정하면 ‘매우 그렇다’ 를 줘야하는데 ‘보통이다’ 를 주면 말이 안 된다. ‘보통이다’ 를 5점으로 주고 누락이나 안 지킨 게 있으면 -1점, 횡령 있으면 -1점 등 차감제로 가는 건 어떤가?
- 10) 인문대 회장: 현행 1점은 ‘전혀 아니다’ , 5점은 ‘매우 그렇다’ 인데 말씀대로 라면 5점을 ‘보통이다’ 로 기본값을 두면 그 밑에 있는 점수들에 대한 한글 기준은 뭐라고 해야 하나?
- 11) 일문과 회장: 살짝 애매하긴 하다. ‘보통이다’ 는 적당히 준수했다인데 회계 처리를 적당히 준수했다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매우 잘 준수했거나 부정이 발생했다는 거다. 그래서 차감 형식으로 일단 5점을 부여하고 누락된 게 있으면 1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24점도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 12) 일문과 회장: 동아리 사업계획서에 동아리 목적·특성이 당연히 적혀 있나?
- 13) 역사식당 회장: 입학대회 때 동아리 목적·특성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고 PPT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14) 일문과 회장: 동아리 특성을 잘 살린 활동이라 함은 무엇인지도 잘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인준 준비를 잘하고 제명당하지 않을 사유가 충분히 보인다면 대의원 논의를 거쳤을 때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15) 인문대 회장: 동아리 측 제안에 대해서는 모든 학과 회장님들은 다 동의하는 건가? 정리하자면 사학과 회장님께서 가항인 ‘동아리 부원의 소속 학과는 다양한가?’ 을 신규등록일 때만 점수제로 두고 재등록을 때는 0,X로 두자는 것과 일문과 회장님께서 ‘보통이다’ 를 기본 5점으로 두고 지켜지지 않을 시 차감점은 대의원 주관으로 둔다는 것이다.
- 16) 일문과 회장: 차감제를 뒀을 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17) 인문대 회장: 만약에 차감제로 하게 되면 기준 완화 없이 24점으로 가도 되지 않나? 평가 항목이 지켜졌을 때는 차감될 게 거의 없으니 24점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 18) 일문과 회장: 아예 모든 항목을 차감제로 시작하자는 말인가?
- 19) 인문대 회장: 모든 항목을 차감제로 하든지 회계 부분만 차감식으로 두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본인의 주관적인 점수를 주자로 나눌 수 있다.
- 20) 사학과 회장: 차감이라는 것이 항목에 점수를 기입한다는 말인가?
- 21) 인문대 회장: 5점이 기본인 거고 예를 들어 ‘동아리 특성을 잘 살린 활동을 하였는가’ 를 보면 사람마다 그 활동이 동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없다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다.
- 22) 독문과 회장: 동아리 수상도 있고 결과를 내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려면 과정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버리면 동아리원들의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규등록은 처음이고 그 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 기준을 엄격하게 보는 게 맞고 재등록인 경우에는 그전에 해왔던 결과도 있으니 재등록 기준을 만들어서 신규등록보다는 기준 완화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 23) 인문대 회장: 학과 회장님들 모두 신규등록과 재등록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를 매기고 재등록 기준을 20점으로 완화하는 것과 재등록에 있는 세칙 내용을 바꿔서 차감제로 하고 재등록 기준을 24점으로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나?
- 24) 일문과 회장: 인문대학 동아리인 만큼 인문대에서 믿어주고 시작하는 것이기에 재등록 기준을 20점으로 내리는 것보다 차감제가 나올 것 같다.
- 25) 인문대 회장: 재등록인 경우 모든 항목에서의 점수를 차감제로 두자는 것인가?
- 26) 일문과 회장: 그렇다.
- 27) 인문대 회장: 역사식당 동아리가 작년 인학대회에서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나?
- 28) 역사식당 동아리: 역사식당은 아니고 BE 동아리가 의혹 제기를 받았다.
- 29) 인문대 회장: 평가 항목 중 ‘주기적이며 활발한 대면 활동을 진행하였는가’ 와 회계적인 문제는 인학대회에서만 얘기가 되니 인운위 측이 불리하다고 전임 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 활동이 단순히 10분 만나고 끝나는 활동인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나 해서 불시점검 이야기가 나왔다.
- 30) 역사식당 동아리: 동아리 특성 상 외부로 나가는 일정이 많아 같이 이동한 후 참관하시는 게 번거로우실 것 같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줄이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시는 게 어떤가?
- 31) 일문과 회장: 활동 기록부는 있나?
- 32) 역사식당 회장: 활동 기록은 노선으로 남겨두고 있고 이번 학기는 활동마다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 33) 인문대 회장: 불시점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34) 독문과 회장: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의견이다. 동아리 특성 상 이동하는 활동이 많은데 불시점검을 멀리 갈 땐 안 하고 가까운 데는 점검하면 당연히 활동마다 퀄리티와 준비한 게 다를 텐데 임의적으로 봤을 때 질이 낮은 활동들만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불시점검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 35) 영문과 회장: 노선에 활동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작년 인학대회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활동 사진은 사진만 찍고 끝내는 등 조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그래서 사진과 그날 활동했던 노선의 기록들을 따로 파일에 정리해서 첨부하는 등 더 명확한 활동 보고 사항들을 보여주면 대의원분들이 믿고 인문대학 동아리를 좋은 분위기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36) 인문대 회장: 불시점검까진 필요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 세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바. 세칙 관련 최종 결론

- 1) 신규등록과 재등록 구분 짓는 것에 동의
- 2) 신규등록인 경우 그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 기준을 엄격하게 보는 게 맞아 현행과 똑같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24점 이상 받을 시 인준 통과
- 3) 재등록 규정을 새로 만든 후 모든 항목에서의 점수를 차감제로 바꾸고 24점 이상 받을 시 인준 통과

사. 인학대회 심사 순서

- 1) 논의
  - 가) 역사식당 회장: 이번 인학대회는 기존 세칙으로 심사를 받는 건가?
  - 나) 인문대학 회장: 세칙을 먼저 의결하고 동아리 인준을 받으냐 아니면 동아리 인준을 먼저 받고 세칙을 바꾸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칙을 바꾸게 되면 바꾼 세칙대로 역사식당을 평가하게 되고 동아리부터 인준하고 세칙을 바꾸면 인준할 때는 기존의 세칙으로 평가하게 된다.
  - 다) 사학과 회장: 인운위에서 세칙 변경하기로 합의를 봤으니 인학대회 때 찬반투표를 안하는 건가?
  - 라) 인문대 회장: 동아리 세칙 변경 내용은 인운위에서 논의를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고 인학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순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칙 변경을 거절당하면 기존 세칙으로 동아리를 평가해야 한다.
  - 마) 사학과 회장: 그럼 준비를 두 번 해야 하니 차라리 이번엔 기존대로 하고 다음부터 변경 내용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 바) 역사식당 회장: 기존 인준 기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준비를 두 번 하더라도 세칙 변경을 이번에 하고 싶다. 그렇다면 회칙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인학대회에서 다시 말씀 드려야 하는 건가?
  - 사) 인문대 회장: 왜 세칙을 변경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해 한 번 더 설명하셔야 한다.

아) 역사식당 회장: 제가 먼저 세척 기준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세척 변경 찬반투표를 받고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동아리 발표 후 인준을 받는 건가?

자) 인문대 회장: 그렇다.

## 2) 결론

가) 세척을 바꾼 그 시간이 아닌 그날 이후로 적용되는 세척들이 있어서 동아리 인준 후 세척 변경이 좋긴 함

나) 하지만 동아리 측에서 세척 개정을 요청한 이유가 기존의 세척이 부담이 돼 바꾸고자 함

다) 세척 관련해서 더 찾아보고 문제가 될 게 없으면 세척부터 바꾸고 인준을 하고 인화 측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준부터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음

## 4. 기타 안건

### 1. 체전 후 사발식 관련

#### 가. 인문대 회장 의견

1) 약습이라 생각해 없애고 싶지만 많은 학과에서 싫어할 것 같아 그대로 두되 제한을 두자

2) 글라스 한 잔으로 두 명이 나눠 마시기를 권고함

#### 나. 논의

1) 사학과 회장: 사발식이 약습인가? 인문대학 전통 아닌가?

2) 인문대 회장: 한 잔만 먹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3~4명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주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약습이라고 생각한다. 또 체전도 학과 행사 중 하나이기에 체전 끝나면 다른 학과에서 술을 마시고 와서 본인 학과로 돌아왔을 때 힘들어하는 것보다 같은 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3) 사학과 회장: 그러면 차라리 컵을 통일해서 들고 다니는 건 어떤가?

4) 독문과 회장: 작년 회장한테 듣기론 회장들끼리 조금만 주자고 약속했는데도 부회장이 술을 따르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

5) 인문대 회장: 인운위에서 기준을 정하면 학과 회장이 부회장이나 학생회한테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6) 일문과 회장: 올해는 플라스틱 잔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게 어떤가?

7) 인문대 회장: 글라스 한 잔 기준으로 정하되 만약 못 드시거나 안 드시고 싶다고 거절할 때 크게 불만을 안 가지는 분위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8) 사학과 회장: 플라스틱 잔에 스티커를 붙인다는 등 기준 선을 만들면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 다. 결론

1) 글라스 한 잔으로 두 명이 나눠 마시기

2) 체육부장 참석한 인운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결정

2. 입학대회 역사식당 PPT 파일

가. 동아리 인준 때 필요한 PPT 파일 준비 바람

3. 사회대 체전 천막 대여 가능 여부

가. 일정: 3/31(화) ~ 4/1(수)

나. 사회대 요청

- 1) 천막이 부족해 여러 단과대에 물어보는 중
- 2) AI 융합대에서 몇 개 대여함

다. 대여 가능한 학과

- 1) 일문과 1개, 독문과 1개

4. 엘리베이터쪽 과실 히터·에어컨 수리 관련

가. 실외기 문제

- 1) 여러 과의 실외기가 묶여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면 다 고장 나는 구조

나. 시설과

- 1) 오늘 영문과 과실·인연 수리 가능하다고 연락함
- 2) 영문과 실외기를 고쳤을 때 영문과만 고쳐질 수도 있고 영문과와 묶여있는 곳들까지 고쳐질 수도 있음

다. 기타

- 1) 영문과 회장: 영문과 실외기 수리를 했음에도 오류가 떠서 내일 한 번 더 확인 후 계속 오류가 뜨면 행정실에 문의해서 아예 교체하는 게 낫다는 답변 받았다.
- 2) 인문대 회장: 영문과 실외기를 내일 한 번 더 보고 조치 후에도 안 되면 행정실에 말씀드리겠다. 역사식당 동아리실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나?
- 3) 역사식당 회장: 그렇다. 바로고치미 신청을 한 후 시설과에서 보고 가셨는데 노후화로 아예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5. BE 동아리

가. BE 동아리가 인문대학 동아리 신규등록 원함

나. 입학대회 세척에 따라서 신규등록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 같음

6. 입학대회 관련

가. 대의원 명단

- 1) 학과당 학생회장 및 1~4학년 과대 총 5명의 정보 작성 바람
- 2) 대의원 공석과 불참은 다르므로 정족수 계산을 위해 정확하게 작성 바람
- 3) 3/16(월) 18시까지 대의원 참석·불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 장소

- 1) 기존: 인문대 3호관 소강당
- 2) 변경: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
- 3) 사유

가) 소강당 공사가 최근에 마무리되어 시스템이 고장나면 고가의 장비라 수리비가

7~8억이 든다고 함

나) 기기가 고장났을 시 고장 낸 사람을 잡기 위해 CCTV를 달 예정인데 3월 중에 달  
아 4월 안에 끝나기에 그전까지는 소강당 대여가 불가하다고 함

## 7. 인문대학 풋살대회 참가비

### 가. 참가비 의문

- 1) 사학과 회장: 참가비를 팀당이 아닌 인당으로 걷는 이유가 무엇인가?
- 2) 인문대 회장: 팀당으로 걷으려고 했으나 학과마다 참여 인원이 달라 개인당 부담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팀당 4만원으로 받으면 어떤 과는 6명이 참가해 인당 6700원을 내고 다른 과는 12명이 참가해 인당 3300원을 내게 된다. 같은 행사를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다르면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형평성을 맞추고자 참가비를 인당으로 정한 것이다.
- 3) 사학과 회장: 추가 인원이 생기면 매번 확인하시는 건가?
- 4) 인문대 회장: 매번 확인한다. 어제 보내주신 자료로 명단을 제작했고 경기 시작 3시간 전까지 무슨 과 누구 참가하겠다고 말씀만 주시면 바로 추가 후 명단을 프린트하고 그날 경기 전에 확인을 한다.
- 5) 인문대 회장: 학과당 참가비는 최대 4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4만원은 낸 학과는 추가 인원이 생겨도 참가비를 안 내도 되고 4만원이 안 된 학과는 추가 인원만 4천원을 입금하면 된다.
- 6) 독문과 회장: 학과 내 동아리가 있으면 동아리 회비로 4만원을 내고 동아리가 없는 학과는 참여 인원끼리 4만원을 내면 되지 않나? 어차피 우승 후 상금을 나눠가지는 것도 참여 인원끼리 가져가는 거니 차라리 팀당 4만원은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 7) 인문대 회장: 학과에서 제기했던 의문이 팀당으로 참여를 하니 참가비를 학생회비로 내야 되는가가 있었다. 학생회비는 남학우뿐만 아니라 여학우도 내는데 여학우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왜 학생회비로 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팀당으로 두지 않은 거다. 팀당으로 참가비를 받으면 학생회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남학우들이 주로 참가하는 행사에 학생회비를 쓸 것 같다는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비를 쓰자는 기준을 둔 것이다.
- 8) 독문과 회장: 학생회비가 아닌 학과 내 동아리 회비로 내고 동아리가 없는 학과는 참여 인원끼리 4만원을 나눠서 내도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우승을 하게 되면 참여 인원끼리 상금을 나눠 가지기에 인원이 적어도 상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 9) 사학과 회장: 인문대학 행사니까 학과 단위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사학과는 참가비를 학생회비에서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 오전에 룰북을 보내주시면서 참가비 공지를 하고 너무 빠르게 돈을 보내라고 하셔서 사비로 입금을 해버리면 학생회비로 다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 10) 인문대 회장: 참가비 입금 기한에 관해서는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해서 풋살대회 담당자인 문화국장에게 한 번 말을 해볼 생각이다.

- 11) 사학과 회장: 이미 입금을 했으면 다시 환불은 안 되는 건가?
- 12) 인문대 회장: 학생회비 계좌로 입금한 게 아니라 집행부원의 비어있는 통장의 개인 계좌라 충분히 환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학과는 사학과 이름으로 입금하고 싶은 건가?
- 13) 사학과 회장: 그렇다. 사학과 내 소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학과 이름으로 내고 싶다는 의견이다.
- 14) 인문대 회장: 문화국장과 얘기하고 정해지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기타 논의

- 1) 사학과 회장: 경기 8일 전에 말하면 무조건 예약이 가능한가?
- 2) 인문대 회장: 무조건은 아니다. 전남대 풋살장이나 운동장 대여를 하려면 7일 전 자정부터 예약이 열리기에 8일 전까지는 말씀해주셔야 인문대 학생회가 자정에 컴퓨터로 예약을 할 수 있다. 7일 이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원하는 시간대에 이미 60개가 넘는 축구 관련 동아리 및 소모임이 예약을 완료했을 수도 있다. 구장 예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8일 전에 말씀해달라고 하는 거다.
- 3) 사학과 회장: 인학에서 날짜를 큰 틀로 지정해주면 학과 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 4) 인문대 회장: 날짜를 지정해주면 학과 내 제일 잘하는 친구가 그날 안 된다고 하면 그 과는 경기 자체를 기피하려는 성향이 있어 인학에서는 경기 날짜에 대한 강요 아닌 강요는 할 수 없다.

8. 학과 내 카드뉴스 및 공지 공유

- 가. 최근 인문대 학우들에게 학과 내 공지가 늦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음
- 나. 주차권·기타 행사·수요조사 등 중요한 공지는 빠르게 공유 바람